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電話 03131 서울특별시 중랑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03

2017 | Vol. 543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新たな春を迎えて)
Photo : Hwang Yongha

니시오카 타쓰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부임사



약력

- 1992년 4월 외무성 입성
- 2005년 7월 주인도네시아 일본국대사관 1등서기관
- 2007년 8월 주이스라엘 일본국대사관 1등서기관
- 2010년 7월 주이스라엘 일본국대사관 참사관
- 2010년 7월 유럽연합 일본정부대표부 참사관
- 2012년 8월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인권인도와 헤이그조약실 기획관
- 2012년 8월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인권인도와 헤이그조약실장
- 2014년 4월 외무성 영사국 정책과 헤이그조약실장
- 2014년 8월 외무성 영사국 해외일본인안전과장
- 2015년 12월 외무성 국제협력국 지구규모과제 총괄과장
- 2017년 1월 주한일본대사관 공사(공보문화원장)

2월 말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으로 부임한 니시오카 타쓰시(西岡達史)입니다.

저의 첫 외국 경험은 1988년, 학생교류로 방문한 서울이었습니다. 일본의 남 알프스 아카이시다케(赤石岳) 산에서 만난 한국인 그룹과 밤새 술을 마신 적도 있습니다. 친숙한 나라지만, 살면서 일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공보문화원은 일한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7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이용자는 연간 총 4만 3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약 3만 권의 일본관련 서적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 J-POP을 즐길 수 있는 일본음악정보센터,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는 전시 공간과 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보문화원은 ‘일본의 새소식’ 발행과 ‘한일 포토콘테스트’ 등의 홍보사업, 일본문화소개행사와 일본어스피치대회, 연극대회, 가요대회를 비롯한 일본어와 관련된 문화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국비유학생과 JET 프로그램의 홍보 및 선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도 실시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내년 2018년에는 평창에서, 2020년에는 도쿄에서 올림픽·패럴림픽 개최가 예정되고 있어, 일한 간의 인적 교류도 한층 활발해질 이 시기에 부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옛 친구와의 재회와 새로운 만남도 기대하면서 한국생활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니시오카 타쓰시(西岡達史)





도쿄로자와마쓰리의 클라이막스로 수레가 모인 모습은 박력이 넘친다.

사이타마 현 도코로자와 시

도코로자와 시는 이런 곳

도코로자와 시(所沢市)는 도쿄 도(東京都) 북쪽에 위치하며, 사이타마 현(埼玉県)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인구 34만 명의 도시다. 도쿄를 대표하는 신주쿠(新宿), 이케부쿠로(池袋)까지 전철로 30분이면 닿는 편리성 때문에 베드타운으로 발전해 왔다. 도코로자와 시 중심부는 상가와 상점이 즐비해 활기찬 거리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푸른 자연과 농지가 펼쳐져, 자연과 문화가 알맞게 공존한다. 경기도 안양시와는 수도(首都)의 베드타운이라는 공통점으로 1998년에 자매도시를 체결했다.

일본 최초의 항공기 전용 비행장이 설립된 도시

1911년 4월 1일, 일본 최초의 항공기 전용 비행장을 도코로자와에 건설했다. 같은 해 4월 5일, 도쿠가와 요시토시(徳

川好敏) 대위가 조종하는 프랑스산 앙리 팔망 복엽기(複葉機, 앞날개가 두 개인 비행기)가 일본 최초로 비행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도코로자와 시는 ‘일본 항공의 발상지’로 불리고 있다. 현재, 이 비행장 터는 공원으로 정비되어 일본 항공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항공발상기념관과 도코로자와 시립도서관을 비롯해, 일본 정원·다실인 ‘사이쇼 테이(彩翔亭)’와 라이브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원이 되었다. 다수의 이벤트가 이 공원에서 열리고 있으며, 시 내외에서 많은 사람이 찾는 휴식처가 되고 있다.

‘토토로’를 만날 수 있을지도

도코로자와 시 서쪽에는 사야마코(狭山湖) 호수를 중심으로 신록이 풍요로운 사야마 구릉(狭山丘陵)이 있다. 이곳은 영화 ‘이웃집 토토로’의 무대가 되었다고 한다. 도쿄 도와 사이타마 현에 걸쳐 펼쳐지는 약 3500ha의 사야마 구

릉은 수도권에 남겨진 녹색 부도라 불린다. 도코로자와 시에 있는 사야마코는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호수로서 시민과 도시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산책지가 되었으며, 무사시노(武蔵野) 고향마을의 풍경이 남아 있다.

또 완만한 언덕과 계곡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사계절 산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 지금은 보기 드문 화초, 포유동물, 조류 등이 다수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로서 동식물의 쉼터가 되고 있으며, 마음 속 고향마을의 풍경이라 할만한 자연과 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2대 프로 스포츠의 연고지

도코로자와 시는 2대 프로 스포츠의 연고지다. 하나는 프로야구팀으로서 도코로자와 시에 본거지를 둔 사이타마 세이부(埼玉西武) 라이온즈다. 또 하나는 프로농구팀으로 도코로자와 시를 중심으로 사이타마 현 내에서 활약하는 B리그의 사이타마 브론코스다. 이 두 스포츠를 관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내에는 넓은 부지에 다채로운 놀거리가 있는 세이부엔 유원지(西武園ゆうえんち)가 있다.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실내 스키장 사야마스키장(狭山スキー場) 등 문화·예술, 놀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하루 종일 즐길 거리가 있다.

쿨 재팬의 총본산

‘COOL JAPAN FOREST 구상’은 도코로자와 시와 주식회사 KADOKAWA가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와 자연이 공생하는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역 만들기 구상이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이 융합된 일본의 복합문화시설과 도코로자와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시설을 정비하여 ‘쿨 재팬의 총본산’으로서 애니메이션·게임에 그치지 않고, 일본 문화의 저력과 매력을 알릴 것이다.

또 앞으로 일본 전역에 산재한 애니메이션·만화의 무대와 모델이 된 88곳의 지역과 장소를 애니메이션 성지로 선정하고, 각 성지를 고루 돌아보게 하는 광역 순례 애니메이션 투어리즘은 외국인 여행자 유치 계획으로서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코로자와는 이 88곳의 애니메이션 성지 가운데 첫 번째 순례지로서, 일본 전역의 애니메이션 성지로 애니메이션 팬을 보내게 된다. 도쿄 올림픽에 맞춰 2020년 문을 열 예정이다.

도코로자와 마쓰리

도코로자와 마쓰리(ところざわまつり)는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1868년~1912년) 초기부터 이어진 축제다. 매년 10월 2주째 일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행사장인 도코로자와



도코로자와 시의 대표적인 휴식처인 항공기념공원



사야마코 호수와 사야마 구름, 날씨가 좋으면 호수 넘어 후지 산이 보인다.

역 주변부터 도코로자와의 중심 시가지 대부분은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가 되는 등 대규모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며, 총 10기의 다시(山車, 축제에서 끌고 다니는 장식 수레)·미코시(神輿, 신체를 모신 가마)는 거리가 비좁은 듯 달린다. 일몰 후의 클라이맥스에는 모든 '다시'가 한 자리에 모여 마쓰리 바야시(祭囃子, 축제 반주 음악)를 연주하는 등 환상적이고 박력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 도로에는 노점뿐 아니라 곳곳에서 매년 다양한 이벤트 공연이 기획되어 일 년 중 도코로자와가 가장 달아오르는 하루가 된다. 또, 본고장의 삼바 무희가 참여하는 삼바 카니발은 또 하나의 볼거리로서 많은 관객들은 본고장의 열정적인 춤에 매료된다.



수타 우동인 '가테우동'은 도코로자와 시민의 소울 푸드로 간장 국물에 찍어 먹는다.

도코로자와의 명물

사야마 차(狭山茶) : 사이타마 현 내의 농산물 생산 면적 중 가장 넓다. 역사는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85년 경~1333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시즈오카차(静岡茶), 우지차(宇治茶)와 함께 '일본의 3대 차'라 불리고 있다. 잘 알려진 '차 만들기 노래(茶作り唄)'에서는 '색은 시즈오카, 향은 우지, 맛은 사야마가 단연 으뜸'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야키 단고(焼だんご) : 도코로자와의 명물로 널리 사랑받고 있지만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쌀가루를 익만죽 해서 동그랗게 빚어 찌낸 것을 대고챙이에 꽂아 간장을 발라 구운 것이다. 간장 향이 매우 구수하며, 옛날 그대로의 소박한 맛이다.

수타 우동 : 도코로자와는 예로부터 논이 거의 없는 대신, 보리를 많이 경작한 지역이라 오래 전부터 수타 우동을 먹었다. 결혼식 등 축하연에서도 도코로자와 사람들은 꼭 이 우동을 먹었다. 제철 야채를 살짝 데친 '가테(糧)'를 우동과 함께 간장 국물에 찍어 먹는 '가테우동(かてうどん)'이 도코로자와 지역의 특징이다.

(집필: 도코로자와 시, 협력: CLAIR, Seoul)

영화 〈아주 긴 변명〉 니시카와 미와 감독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의 제자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감독으로 알려진 니시카와 미와(西川美和) 감독이 신작 〈아주 긴 변명(永い言い訳)〉 개봉에 앞서 한국을 방문했다. 원작, 각본, 연출을 모두 맡은 니시카와 감독의 인생과 세계관이 담긴 이 작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이 몇 번째 방한이신가요. 한국 영화인과의 친분은 있는지, 좋아하는 한국 영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국은 외국 중에서 가장 방문 횟수가 많은 곳으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나 일본국제교류기금 주최 행사를 위해 방한했습니다. 그 밖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여수국제박람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한국 영화인으로는 봉준호 감독님, 이창동 감독님, 양익준 감독님과 친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한국 영화는 너무 많아서 어느 한 작품을 고르기는 어렵지만, 이창동 감독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상업 영화지만 개성이 강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영화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이창동 감독님 같은 분이 아시아에서 활약하고 계신 덕분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뜻을 잃지 않게 해 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今回は何度目の訪韓でしょうか。韓国の映画人との親交はありますか。好きな韓国映画は。

韓国はおそらく最も訪問回数の多い外国で昨年も釜山国際映画祭と国際交流基金主催の行事で訪れました。他に、ソウル国際女性映画祭や麗水国際博覧会に参加するためにも韓国を訪れました。韓国の映画人としては奉俊昊(ポン・ジュノ)監督、李滄東(イ・チャンドン)監督、梁益準(ヤン・イクジュン)監督とお付き合いがあります。好きな韓国映画は本当に多くて、一つの作品を選ぶことは難しいですが、李滄東監督を凄く尊敬しています。商業映画でありながら、作家性が強く、人の心にきちんと残るような映画を作っていくという意味で、李滄東監督のような人がアジアで頑張っているから、自分たちも何かが出来るかも知れないと志を失わずにいられる、そのような存在です。

영화 감독을 지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전혀 영화 감독을 지망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감독이 원한다고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의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곳의 문을 두드렸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께서 조수를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신 것이 영화감독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고레에다 감독님의 조언으로 시나리오 작성 작업을 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감독을 맡고 있더군요(웃음). 소극적이죠.

고레에다 감독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으셨나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고레에다 감독님께서도 시나리오, 캐스팅, 편집 등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담당하십니다. 상업영화는 분업이 당연한 일이지만, 고레에다 감독님께서도 시간을 들여 기획을 가다듬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배우와 스태프를 엄선하여 촬영과 편집까지 모두 감독 주도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십니다. 자신의 영화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까지 생각하는 것이 고레에다 감독님의 스타일입니다. 자신의 영화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이죠. 고레에다 감독님께서도 저보다 작품 제작 속도는 빠르지만, 한 작품을 위해서 3년, 4년을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물론 소설 집필도 하고 계신데, 영화와 소설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각각의 매력과 어려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소설은 돈이나 시간의 제한도 없고, 리스크는 최소한인 채로 납득이 갈 때까지 써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설에는 등장인물의 심정과 마음 속의 말 등 눈에 보이지 않거나 귀에 들리지 않는 것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화보다 인물상을 깊게 탐구할 수 있고, 매우 복잡한 인간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힘도 빌릴 수 없고, 다 쓰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자신의 능력과 매일 마주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스스로 소설을 써보니 소설

映画監督を志したきっかけはありますか?

実は、映画監督をまったく志してはいませんでした。映画監督が、望んで「なれる職業」だとも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ただ、とにかく映画が好きで、映画の世界で生きて行きたいと思い、色々と門を叩いていたところ、是枝裕和監督がアシスタントをやらなにかと言ってくださり、これが映画監督になる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その後、是枝監督の助言でシナリオを書いたりしているうちに、気がついたら監督をやらされていたという(笑)。消極的です。

是枝監督からどのような影響を受けましたか?

基本的に「自分ですべてやる」ところですね。是枝監督は、シナリオ、キャスティング、編集など、すべて自ら責任を持って担当されます。商業映画は分業が当たり前ですが、是枝監督は、時間を掛けて企画を練り、自分が良いと思う俳優やスタッフを厳選し、撮影や編集まで全てを監督主導で行い、成功されています。自分の映画をどのようにビジネスに繋げていくかという部分まで考えることが是枝監督のスタイルです。自分の映画に対してどこまで責任を持つかということですね。是枝監督の方が私より作品制作のペースは速いですが、一作品につき3年も4年も付き合っていくという意識を持つ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く影響された部分だと思います。

映画はもちろん小説の執筆も手がけられていますが、映画と小説の創作活動におけるそれぞれの魅力や難しさ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小説はお金や時間の制限もなく、リスクは最小限のまま、納得いくまで書き続けられるという点で非常に自由だと思います。また、小説には登場人物の心情や心の中の言葉など、目に見えないことや耳に聞こえないことをいくらでも書けます。そのため、映画



가는 끝없는 고독과 싸우는 직업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반대로, 영화는 돈과 시간의 제한과의 싸움입니다. 두 시간 안에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영화는 소설에 비해 유형적이고 알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는 제약도 있습니다. 한편, 영화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이 가미되어 있어, 자신이 목표한 것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의 작품이 태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표현이 가능한 것도 영화의 매력입니다.

원작 소설, 각본, 감독을 모두 본인이 직접 맡으신 신작 〈아주 긴 변명〉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이번 신작은 40살이 되기 얼마 전부터 기획을 시작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실제로 느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우 현실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작품의 테마를 떠올린 것은,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말입니다. 지진 재해라는 큰 사건을 계기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관계의 소중함을 얼마만큼 실감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이르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인간성이 모티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20대나 30대 초반에는 좀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모티브와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에서는 같은 사고로 아내를 잃은 두 남성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직업, 성격, 인생관, 가족관 등 모든 점에서 맞지 않는 두 사람의 캐릭터를 설정한 목적이 있나요.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타이밍에 가장 소중히 해야 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또 하나는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전혀 맞지 않는 타인과 사람은 서로 공감하고 공생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그리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사치오는 ‘머리모만 생각하여 행동



に比べて人物像を深く掘り下げることができ、非常に複雑な人間性を描くことができます。でも、誰の力も借りることもできませんし、書き終えなければ終わらない、自分の能力と日々向き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作業です。自分で小説を書いてみて、小説家は果てしない孤独との戦いをする職業であることを実感しましたね。翻って、映画はお金や時間の制限との戦いです。2時間で内容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映画は、小説に比べ、類型的で分かりやすく表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制限もあります。一方で、映画は皆で一つの作品を作り上げるという点が魅力的だと思います。自分の力だけでなく、色々な人の力が加味されていて、自分が目指そうとしたもの以下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が、それ以上の作品が生まれる瞬間があります。また、言語に頼らない表現ができることも映画の魅力ですね。

原作小説、脚本、監督の全てをご本人が担当された新作「永い言い訳」を制作したきっかけは。

今回の新作は、40歳になる手前くらいから企画を始めたので、40年間の自分の人生の実感のようなものが詰まっています。物語の作り手としての、自分の恥をさらして書いた部分もありますので、非常にリアリティーのある話だと思います。最初に作品のテーマを思いついたのは、東日本大震災があった2011年の末頃です。震災という大きな出来事をきっかけに、「今、自分に与えられている時間や関係のかけがえのなさを、どれだけ実感できているだろうか」という思いに至り、作品を作り始めました。そうした意味で、私

이 따르지 않고, 감정 표현이 서툰고,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라는 제 자신의 인물상과도 가까운 캐릭터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이치라는 정반대의 캐릭터를 설정했습니다. '차이'가 있는 사람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차이에 대해 관대해지고, 적절한 거리감을 발견하여 서로를 지탱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이상론이 반영된 작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다양한 경험을 쌓아 가다 보면 그 연령이었을 때밖에 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뷔작인 <산딸기>는 가정의 붕괴를 그리고 있지만 제가 젊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20대 초반의 저는 자신이 자란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인생 경험을 쌓아 그때밖에 그럴 수 없는 다양한 취향의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팬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끔 영화제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많은 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제 영화를 봐주시고, 좋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 <아주 긴 변명>을 한국에서도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가슴에 와 닿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극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人間性がモチーフになっているとも言えますが、きっと多くの方にも通じるテーマでもあると思います。恐らく、20代や30代の前半ではなかなか思い至らなかったモチーフやテーマだと思います。

作品では、同じ事故で妻を失った二人の男性が対照的に描かれています。職業、性格、人生感、家族観、全ての点で交差しない二人のキャラクターを設定した狙いはありますか。

作品を制作するに当たって、二つやってみたくてありました。一つ目は、「最悪なタイミングで一番大事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人を失っ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こと。もう一つは、「考え方や生き方がまったく交わらない人と、人は共感し合ったり、共生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を描くことです。主人公の幸男は、「頭でっかちで、感情表現は下手で、表裏がある人間」という私自身の人物像にも近いキャラクターを想定していたので、陽一というまったく正反対のキャラクターを設定しました。「違い」のある人と、同じ屋根の下で暮らすことは無理でも、お互いの違いに対して寛容になって良い距離感を見つけ出し、お互いを支えて行くことができたらいいなという、ある意味で私の理想論が反映された作品になっています。

今後の活動計画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色々な経験を積んでいくと、その年齢でしか書けないものがあります。例えば、デビュー作の『蛇イチゴ』は家庭の崩壊を描いていますが、私が若かったからこそ作ることができた作品だと思います。10代~20代前半の私は、自分が育った家庭が崩壊することを非常に重大な問題であると感じていたからです。これからも人生経験を重ね、その時でしか描けない色々なテイストの映画を作っていきたいです。今回は私小説的な作品を手掛けたので、次回はあまり自分に近くない、自分の知らない世界を取材して作品を作りたいと思います。

韓国のファンの皆さんに一言お願いします。

たまに映画祭などで韓国を訪れると、多くの方々が温かく迎えてくださいます。自分の映画を観てくれて、好きだと思ってくれる方がいらっしやと思うと、とても励まされます。今回、『永い言い訳』を韓国でも公開できたことを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きっと胸に届く作品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是非、劇場でご覧いただきたいです。

소우미

일본 요리를 배우게 된 계기는.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한 가지에 전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 비록 문화센터에서 배운 간단한 요리를 가족들에게 만들어주는 수준이지만, 주부로서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왔던 건 역시 요리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평소부터 일본 요리의 정교함과 정갈함에 반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일본 요리를 꼭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나카무라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요리를 배워 가게를 내겠다는 마음보다 자기 계발을 위한 취미 활동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본 요리를 배우다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사업에까지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써서 만드는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일본 요리에 더욱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이렇게 좋은 식재료로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소우미를 열게 되었습니다.

'소우미'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는 분께서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담긴 '총신(總身)'이라는 한자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일본 요리를 제공하는 가게니 이를 그대로 일본어로 읽어 '소우미'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는 점은.

저는 가격보다 '정직하고 기본에 충실한 소우미 만의 맛'에 중점을 둔 일본 요리를 제공 하고 싶습니다. 가게 메



뉴는 메인 셰프와 상의해서 정하지만, 손님께 음식을 낼 때는 요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셰프가 직접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님들도 매우 좋아하십니다. 저희 가게의 요리를 더 깊이 맛볼 수 있고, 보다 많은 분께 일본 요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일반적인 한국 스타일의 이자카야를 연상하면서 오는 분도 계시지만, 소우미는 지인과 편하게 앉아서 맛있는 일본 요리를 먹으면서 사케를 음미할 수 있는 분위기의 공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리 고유의 맛을 그대로 살려 제공하느냐, 아니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어느 정도 현지화 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쪽인가요.

저희 가게는 일본 고유의 맛을 그대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손님의 입맛에 맞추기가 힘들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간혹 김치를 달라거나, 요리를 더 맵게, 더 짜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니까요. 저도 이런 요구에 맞춰 볼까 하며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셰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리더군요. 한국식의 강한 맛을 내지 않고 일본 고유의 맛을 고집하며 1년 정도가 지나자 '소우미에서는 일본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지금은 이를 먹어보기 위해 가게를 찾는 손님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요리 본연의 맛을 지킨 '소우미의 색깔'이 지금은 가게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요리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국에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많은 요리가 있는 것처럼, 일본 요리도 '가정 요리'부터 '가이세키 요리' 같은 고급 요리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일본 요리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향신료나 양념을 첨가하지 않아도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을 낼 수 있죠. 여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깔끔한, 정갈한 플레이팅에 신경을 쓰는 점이 일본 요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우미에서는 손님들이 이러한 일본 요리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

가게 확장 등 여러 가지 꿈은 있지만, 당분간은 '소우미만의 색깔'을 지닌 특색 있는 일본 요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15년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처음 모집을 시작한 '일본문화원 리포터'. 이들은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SNS 등을 통해 알리는 자원봉사자다. 일본문화원 리포터 2기는 2016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약 8개월 간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2월, 활동을 마친 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와 소감을 들어보았다.



조수현 | 클로버일본유학원 원장

작년 9월, 도쿄 히비야(日比谷) 공원에서 개최된 '한일 축제한마당 2016 in Tokyo'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축제라 가능했던 대화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따뜻한 활동이었다. 이 소중한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양국 간 문화교류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손보람 | 청북도교육청

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생활과 문화 등을 매월 기사로 작성해서 널리 알렸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 몸담으며 양국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우호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갈 것이다.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그리고 일본문화원 리포터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전민지 |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석사과정

일본현대미술과 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했던 일본문화원 리포터. 일본 방문 프로그램 참여와 정기 교류회 등 많은 행사를 경험했던 지난 8개월은 '내가 알지 못했던 일본'의 작은 조각까지 맞출 수 있었던 보석 같은 시간이었다. 폭넓은 관심사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리포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배웠다.



박상예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나를 일본 전문가(?) 만들어준 멋진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히라가나도 몰랐지만, 지금은 생존 일본어를 구사할 정도가 되었다. 같이 활동했던 친구로부터 동기 부여도 받았고, 기사를 작성하며 현지에서 느꼈던 일본문화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었다.



신예인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직장인과 대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본문화라는 공통 관심사로 모여 일본문화원 리포터(2기)로 활동하며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의 고구려 의상 시착 부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짧은 일본어 실력으로 괜찮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정제혁 |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일본, 특히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6박 7일 동안 일본에 체류하며 일본의 다양한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 특히 도쿄의 사사노유키(笹乃雪)에서 맛본 두부 요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두부 하나로 그렇게 많은 코스 요리가 나온다는 사실에 놀랐다. 정말 소중한 추억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김지은 |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일본을 방문해서 우동 만들기, 급류 타기 체험, 도쿄의 한 일축제한마당에 참가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 내가 취재한 기사가 일본문화원 블로그에 소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 뿌듯했고, 이것이 일본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도 양국 간 문화교류의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가하고 싶다.



이재은 |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일본문화원 리포터의 막내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과 만났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더듬거리는 일본어로 한국과 일본에서 만들었던 소중한 인연들은 내게 그 의미가 깊다.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양국 관계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



이승환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일본이란 나라는 오래 전부터 알았지만, 일본문화원 리포터로 활동하기 전에 나는 단순히 과거의 추상적인 추억으로만 일본을 알고 있던 것 같다. 이번에 기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일본 관련 자료를 찾으며, 더 전문적으로 알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리포터 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유도경 | 경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일본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인연을 맺을 수 있어 좋았다. '문화교류'를 글로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더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1300년 고구려의 역사 '고마신사(高

麗神社)'를 방문했던 것과 한일축제한마당에 참여해서 현지 일본 학생들과 함께 했던 기억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조유라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대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하면, 고민없이 '일본문화원 리포터'라고 답할 것이다. 특히, 9월 말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축제한마당에 참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많은 일본사람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부스를 방문했는데, 관계자 여러분과 열심히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한 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한주연 | 숭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일본문화원 리포터 활동을 하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도쿄의 한일 축제한마당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때, 일본인 방문객 대다수가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한국어로 인사를 해 주셨다. 일본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활동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우호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것이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기쁘다.



구성전 약 8개월 간의 일본문화원 리포터 활동은 모든

것이 생소했고 대외활동이 처음인 나에게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재미를 찾았고 경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도쿄 한일축제한마당에서의 기억이 생생한데, 힘들지만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우리 리포터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이 모두 생각한다.

일본문화원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bunkain>
일본문화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munwhawon>



모두를 즐겁게 하는 일본의 다이드게 퍼포먼스

새해 첫 문화행사로서 '2017 신년일본문화소개전'이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일본 다이드게(大道芸, 곡예 및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퍼포먼스의 총칭) 공연을 펼친 여성 솔로 다이드게 아티스트인 'KANA'와 남성 듀엣으로 코믹한 퍼포먼스 묘기를 선보인 '리즈무라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연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KANA 인터뷰

KANA라는 이름의 유래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KANA는 제 본명입니다. 저 자신을 항상 '카나'라고 불렀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이상하다 싶어서 본명 그대로 KANA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다이드게를 보여드리는 것이 메인 활동이지만, 이 밖에도 아이돌이나 여배우를 지도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이드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이드게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15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이드게 이외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 일 이외에는 해본 적도 없습니다.

퍼포먼스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가장 오래 해온 '모자 저글링'입니다. 두 번째는, 유학에서 배운 '홀라후프 퍼포먼스'로 대부분의 홀라후프 퍼포먼스는, 홀라후프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쇼를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는 하나의 홀라후프로 하는 연기로 쇼를 마치고 있어요. 제 기분이나 에너지를 관객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쇼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를 고집하고 있죠. 세 번째는 한 벌 한 벌을 정성 들여 만든 '의상'입니다. 오늘 공연에서도 4벌이



나 갈아입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의상을 바꿔 입는 공연은 세계에서 드물거예요.

해외 활동 시, 기억에 남았던 일이나 어려웠던 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전 세계 홀라후프 퍼포머 가운데 '신'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플로어 쇼'에 출연했던 것입니다. 몇 번이나 응모했지만 처음에는 전부 떨어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직접 관계자에게 쇼에 나가고 싶다고 부탁하기 위해 미국에 갔어요. 그곳에서 유튜브에서 제 쇼를 보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는 출연자를

만나게 되어 함께 프로듀서를 설득한 결과, 기적적으로 다음 해 쇼에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외국에 가면 모르는 것 투성이라 불편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한국에서의 첫 공연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요. 또 오늘 공연의 반응은.

한국어가 유창한 언니가 있어서 한국어도 한국 요리도 모두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은 매우 친근한 존재로 느껴 집니다. 한국 관객 여러분은 분위기를 아주 잘 맞춰 주셨어요. 박수가 필요한 포인트를 잘 캐치해서 호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연을 통해, 모두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아주 기뻐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나 한국에서의 활동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은 '가고 싶은 장소'였지만, 오늘을 계기로 한국이 '돌아올 장소'가 된 것 같아 너무 기쁘네요. 이처럼 '돌아올 장소'를 전세계 곳곳에 만들어서,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더 많이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리즈무라이스 인터뷰

'리즈무라이스' 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요.

츨프 저희 둘은 음대 동창생인데, 음악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자는 생각에 다이도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즈무라이스라는 이름에는 타악기를 이용한 '리듬(리즈무)' 퍼포먼스 활동을 한다는 의미와 흔히 '웃음은 마음의 영양소'라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밥(라이스)을 영양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리즈무'와 '라이스'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두 분이 '츨프'와 '칙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츨프 각 이름의 영어 철자는 'chop'와 'tick'입니다. 관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미로 관객들의 웃



칙쿠(좌측)와 츨프(우측)

는 얼굴, 즉 스마일의 's'를 두 사람의 이름 가운데 넣으면 'chopstick(젓가락)'이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젓가락은 일본어로는 '하시'라 하는데, 하시에는 '다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이름에는 '웃는 얼굴을 위한 가교' 같은 존재의 퍼포머가 되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리즈무라이스의 활동 내용을 알려주세요.

츙프 처음에는 아사쿠사에서 다이도게를 했지만, 저희 퍼포먼스가 거리보다는 무대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거리 공연뿐만 아니라 쇼펍몰이나 학교, 회사의 이벤트 등 무대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이도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칙쿠 둘 다 어렸을 때부터 북을 쳤기 때문에, 음대에서 타악기를 전공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걷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 '뭔가 해볼까'라고 의기투합하면서 다이도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팀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좋은 점이나 어려운 점은.

칙쿠 별로 어려운 점은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공연 시간혹 둘의 일정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좋은 점은 상대방이 있어서 든든하고 아이디어가 2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더 풍부해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츙프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칙쿠가 형상화해 주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죠.

자신 있는 퍼포먼스가 있다면.

칙쿠 저희 퍼포먼스의 근본이기도 한 스틱으로 플라스틱

바구니를 두드리는 리듬 퍼포먼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퍼포먼스에 리듬을 융합시키는 것을 의식하며 쇼를 만들고 있습니다.

츙프 저희처럼 연주와 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퍼포먼스를 '버라이어티 쇼'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 공연은 어땠나요.

칙쿠: 해외 공연은 오늘이 처음인데, 무엇보다 퍼포먼스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빨라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츙프 공연이 매우 기대되는 반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애드립을 할 수가 없어서, 말하지 않고 쇼를 재미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즐거우면서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활동계획은.

칙쿠 TV에도 나가고 더 유명해지면 좋겠습니다(웃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공연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츙프 저는 하나의 목표에 이르는 '정해진 길'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목표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공연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공연 도구를 전부 가져올 수 없어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무대 전체를 리즈무라이스의 색깔로 꾸민 더 큰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3월 일본영화상영회 사회파 명장 이타미 주조 특별전 PART I

3월과 4월 일본영화상영회에서는 일본 사회파 영화의 명장 이타미 주조(伊丹十三) 감독 특별전을 개최한다. 1, 2부로 나누어 5편씩 이타미 감독의 전작품 총 10편을 상영한다. 이타미 감독은 1960년 영화배우로 데뷔해 20여 년의 배우 생활을 거친 후, 1984년 '장례식'으로 감독 데뷔, 일본영화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후,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파헤쳐 고발한 일련의 작품들로 일본 최고의 사회파 감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1997년 미스터리한 죽음으로 생을 마쳤다.

시간 14:30(14:00부터 입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마루사의 여자 マルサの女

일시 3월 6일(월), 16일(목), 27일(월)

출연 미야모토 노부코, 다치야 야스오, 다카라다 아키라

마루사의 여자2 マルサの女2

일시 3월 7일(화), 17일(금)

출연 미야모토 노부코, 미쿠니 렌타로, 쓰가와 마사히코

아게망 あげまん

일시 3월 8일(수), 20일(월), 30일(목)

출연 미야모토 노부코, 쓰가와 마사히코, 오타케 히데치

장례식 お葬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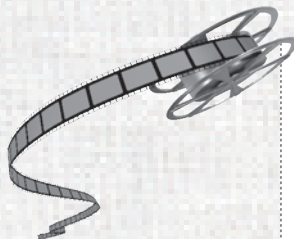
일시 3월 9일(목), 23일(목)

출연 아마자키 쓰토무, 미야모토 노부코, 쓰가와 마사히코

담뽀 뽀 タンポポ

일시 3월 10일(금), 24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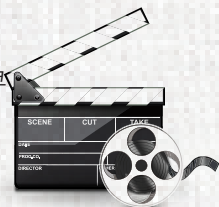
출연 아마자키 쓰토무, 미야모토 노부코, 아쿠쇼 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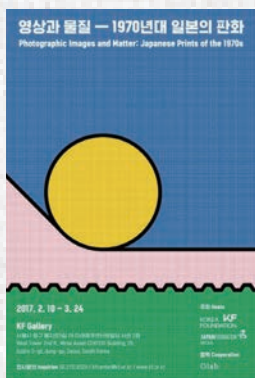
이타미 주조(伊丹十三, 1933~1997)

일본영화의 기초를 쌓았다고 일컬어지는 명감독 이타미 만사쿠(伊丹万作)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부터 영화와 인연을 맺었다. 배우로 영화계에 발을 들인 그는 다수의 히트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 배우로서 족적을 남긴 후, 84년 '장례식'이라는 영화로 감독 데뷔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마루사의 여자', '민보의 여자' 등 일련의 영화들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타미 주조는 영화감독으로서 뿐만 아니라 에세이스트, 일러스트레이터, 상업디자이너, CF감독, 다큐멘터리 제작자 등 다방면에서 활약한 만능 문화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97년 의문의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10편의 문제작들을 만든 영화감독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미망인은 그의 영화들에서 히로인을 연기한 여배우 미야모토 노부코(宮本信子)이며, 아들인 이케우치 만사쿠(池内万作) 또한 영화배우로 활약 중이다. 참고로 세계적인 문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친매제이다.



영상과 물질 - 1970년대 일본의 판화



1970년대 일본 판화 표현의 주요 경향과 현대 미술의 동향을 만날 수 있는 《영상과 물질 - 1970년대 일본의 판화》展이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동 주최로 열리고 있다.

일본 미술사에서 1960-1970년대로 이어지는 시기는 '판화의 황금시대'로 알려져 있다. 1957년 도쿄국제판화비엔날레에서 국제대상을 수상한 노다 테츠야의 작품은 가족의 초상 사진을 판화로 변환한 작품으로 '우키요에'의 국제적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예술의 색다른 표현세계에 대한 전개의 기점이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현대 판화 52점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는 크게 두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실크 스크린이나 오프셋 인쇄가 새로운 판화 기법으로 급

속이 보급되어 현대사회의 표현이 활발해진 '영상 표현의 시대'를 노다 테츠야, 마츠모토 아키라 등의 작가의 작품을 통해 소개하며, 2부에서는 일본 전체적으로 유행했던 이미지의 물질화, 그리고 물질을 통한 정신 표현의 세계를 소개하는 '물질주체의 상'의 주제로 전시한다.

기간 3월 24일까지(일요일, 3월 3일 2시부터 휴관)

도슨트 투어(월~금 12:30, 15:00, 17:00, 18:30, 토요일 12:30, 15:00)

장소 KF갤러리

주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문의 02-2151-6520, kfcen@kf.or.kr <http://www.facebook.com/koreaofoundationgallery>



노다 테츠야(상단), 기무라 고스케(하단)

제16기 일본무용교실 & 제10기 샤미센교실 수료 공연

일본무용교실과 샤미센(三味線)교실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일본을 알기 위한 고전에는 워크숍' 합동수료공연을 개최한다.

일본무용교실은 2000년 4월 17일부터 1년(월2회) 코스의 '일본을 알기 위한 일본무용워크숍'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한국인 수강생의 요청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샤미센교실은 2007년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수료공연은 1년간의 성과를 보다 많은 한국분들께 선보이고, 일본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면서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무용은 가부키 무용에서 출발한 무대공연용 무용을 뜻하며, 샤미센은 현악기로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하나인 나가우타 샤미센으로 섬세한 운율이 특징이다. 일본무용교실의 지도자인 하나야기 순토(花柳春満) 선생과 샤미센교실의 지도자인 이마후지 다마미(今藤珠美) 선생은 오랜 기간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에 힘써온 분들로 두 지도자의 공연이 기대된다.

일시 3월 15일(수) 14:00~16: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일본거문고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정미령 010-7244-6294



JAL Scholarship Program 참가자 선발 안내

JAL 스칼라십 프로그램은 매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대학생을 일본으로 초청,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와 국경을 초월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미래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적 규모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로 48번째로 실시되는 JAL 스칼라십 프로그램은 2017년 6월 26일~7월 18일의 일정으로 도쿄, 이시카와 현 등을 무대로 개최된다. 앞으로 양국 나아가 아시아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람, 모든 프로그램은 일본어로 진행된다. 자세한 응모자격 및 선발 방법 등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류접수 및 선발과정

- 접수 기간 3월 10일(금) 23:59까지
- 온라인 접수 온라인 상에서만 신청서 작성, 접수(우편·방문 접수 불가)
<http://www.kr.jal.com/kr/ko/event/2017scholarship>
- 첨부 서류 ①영문재학증명서 ②영문성적증명서 ③일본어능력 성적증명서

주최 JAL 재단(JAL Foundation)

협찬 일본항공

문의 JAL 스칼라십 담당자 02-3788-5715, <http://www.jal-foundation.or.jp>



한일 청소년 교류회 '한마음, 한목소리'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한일 청소년 교류회 '한마음, 한목소리'가 주한일본대사관 후원으로 개최되며, 일본과 한국 청소년들이 스피치, 퀴즈, 노래자랑 대회, 자유 교류 시간 등을 통해 상호이해와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갖는다. 일본측 참가자는 2016년 12월 히로시마 국제교류센터가 실시한 '한국어스피치대회'에서 선발된 학생 10명이며, 한국측 참가자는 한일협회가 실시한 '일본어학력경시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20여 명이다. 한일협회와 히로시마국제교류센터는 2012년 일한 청소년 교류사업을 위한 협정을 맺고, 그 일환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에서 10명의 청소년이 방한해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 무료.

일시 3월 25일(토) 15:00~19:00

장소 HI SEOUL YOUTH HOSTEL 2층

주최 한일협회, NPO법인 히로시마국제교류센터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한일협회 02-3452-5999, www.koja.or.kr



일본을 알기 위한 워크숍

제17기 일본무용교실

일본무용가인 하나야기 순토(花柳春濤) 선생의 지도로 일본무용교실이 올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코스로 월 2회 실시된다. 상세한 모집 요강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수강료는 무료(단, 의상 세탁비 등 필요경비는 개인 부담).

기간 2017년 4월~2018년 3월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일본거문고회(日本コムゴの会)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정미령 010-7244-6294



일본을 알기 위한 워크숍

제11기 사미센교실

사미센 연주자인 이마후치 다마미(今藤珠美) 선생의 지도로 개최되는 사미센 교실이 올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코스로 월 2회 실시된다. 상세한 모집 요강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수강료는 무료(단, 소모품 비용은 개인 부담).

기간 2017년 4월~2018년 3월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주최 다마미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장규자 010-5387-6641



2017 고토교실

고토 연주자인 도미모토 세이에이(富元清英) 선생의 지도로 개최되는 고토교실이 올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코스로 월 2회 실시된다. 상세한 모집 요강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며 수강료는 무료(단, 소모품 비용은 개인 부담).

일시 2017년 4월~2018년 3월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주최 요시오카 호가쿠샤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박혜경 010-2970-0746



2017 일본가곡교실

소프라노 가수 김정령 선생의 지도로 개최되는 일본가곡교실이 올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코스로 월 2회 실시되며, 일본의 가곡, 동요, 창가 등을 합창과 독창으로 배운다. 상세한 모집 요강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며 수강료는 무료.

일시 2017년 4월~2018년 3월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사단법인 한일여성친선협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사단법인 한일여성친선협회 02-2273-7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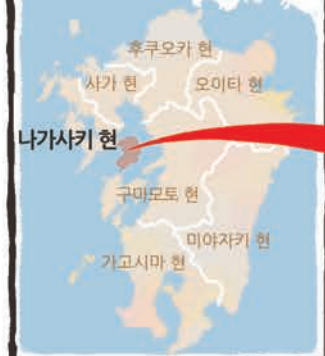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규슈 나가사키 현에 있는 시마바라 반도(島原半島). 3면이 바다가기 때문에 '반도'라 불린다.



시마바라 반도는 3개 시로 되어 있고 약 1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시마바라 반도 중심부에 우뚝 솟아있는 '헤이세이 신산'은 일본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산으로 1990년부터 약 5년간 계속되었던 운젠 후겐타케 화산분화의 화쇄류와 토석류에 의해 형성되었다.



• 화쇄류·고온의 화산재 등이 분출해 산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현상

화산과 공생하는 시마바라 반도에서의 특별한 체험활동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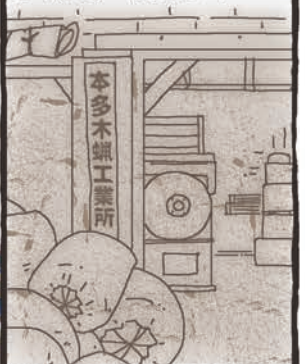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인 에도시대, 시마바라 반도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 마유야마(眉山)는 붕괴되고 성하마을은 순식간에 초토화되었다. 그 여파로 큰 해일이 일어 바다 건너 구마모토 현까지 피해를 끼치는 큰 재난이 발생했다.



시마바라 번(藩)은 화산재에 강한 거망 율나무를 반도 곳곳에 심어 그 열매로 목랍을 만들어 마을의 부흥과 재정을 도모했다고 한다.



1991년 운젠 후겐타케 폭발로 많은 거망율나무가 소실되고 말았지만 그 모든 재난을 극복하고 지금까지도 오랜 전통 방법을 고수해 가며 지켜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혼다(本多) 목랍 공업소.



화산 분화는 시마바라 반도에 재난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를 역으로 이용해 자연의 혜택으로 받아들이며 현재는 화산성 온천과 풍부하게 샘솟는 깨끗한 용천수를 활용해 생활하는 등 화산을 누리며 화산과 공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



화산과 공생하고 있는 시마바라 반도의 대표 특산물.

